

'13년 2/4분기 수출전망 및 수출기업 체감도 분석

(2013. 4.)

목 차

- I. '13년 2/4분기 수출선행지수 추이 및 수출전망
- II. 수출기업의 수출업황 체감도 분석
 - 1. '13년 1/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2. '13년 2/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3. 설문조사 개요

I. '13년 2/4분기 수출선행지수 추이 및 수출전망

□ '13년 2/4분기 수출선행지수 127.3로 2분기 연속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전기대비 1.0% 증가, 상승세를 유지하여 수출 경기 회복 가능성을 보임

※ 선행지수 전기대비 증가율 추이(%) : 0.6('12.3/4) → -0.2(4/4) → 0.1('13. 1/4) → 1.0(2/4)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세, 수출단가 및 가격경쟁력 개선 등으로 상승함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중국 등 개도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낮은 상황 하나 미국의 실업률 등 경기지표 개선, 일본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수출경기 회복이 예상됨

- 수출단가 : 수출단가는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금액기준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가격경쟁력 : 수출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음. 다만 엔화의 평가절하로 일본기업의 가격경쟁은 심화될 전망

※ 가격경쟁력 평가지수 : (주요국 수출단가/한국수출단가)*100

- 주요 산업 : 반도체의 수주/출하 비율이 반등하는 등 IT산업의 회복이 예상되고, 최근 부진했던 선박수출도 인도물량이 집중되면서 다소 회복할 것으로 보임

□ '13년 2/4분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5% 내외 기록 전망

-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상승하고 각국 정부의 적극적 부양의지 등으로 수출증가율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됨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0.1('12. 3/4) → 0.2(4/4) → 1.3('13. 1/4) → 1.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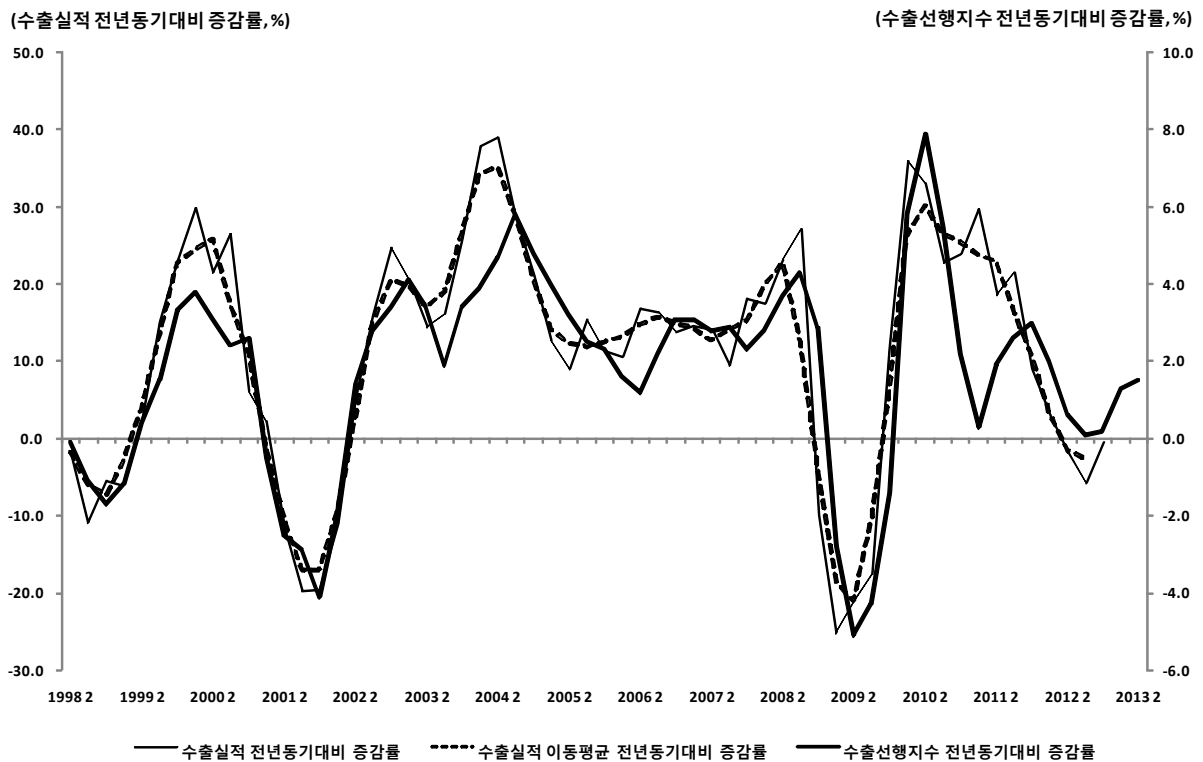
- 그러나, 유로존의 키프로스 사태 등 재정위기의 확대가능성, 일본의 엔화 평가절하 정책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의 하락가능성 등이 수출 회복세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수출선행지수 추이>

분기별	2011				2012				201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선행지수	122.0	124.7	126.1	125.7	124.5	125.4	126.2	126.0	126.1	127.3
전기대비 증감률(%)	0.0	2.2	1.1	-0.3	-1.0	0.7	0.6	-0.2	0.1	1.0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0.3	1.9	2.6	3.0	2.0	0.6	0.1	0.2	1.3	1.5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 차(%p)	-1.9	1.6	0.7	0.4	-1.0	-1.4	-0.5	0.1	1.1	0.2

주 : 수출선행지수의 과거값은 평가요소의 과거값의 수정·변동에 따라 변경됨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경기(수출실적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주 : 1) 수출실적 이동평균은 실적 3분기 이동평균임

II. 수출기업의 수출업황 체감도 분석

1. '13년 1/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1분기 기업의 수출업황 평가 2분기만에 소폭 반등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89)는 전기(87)대비 다소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매우 낮음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기(93)대비 2포인트 하락한 91 기록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기대비 소폭 하락하여 수출물량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86로 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2012년 4분기의 급격한 하락세에서 벗어남
 -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제품원가 상승압력은 심화되었으나, 원/달러환율의 급격한 하락세 진정에 따른 원화기준 수출단가 회복, 주요 수출품(반도체 등)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채산성 하락이 진정됨
 - ※ 원/달러환율 : 1,152('12. 2/4) → 1,134(3/4) → 1,091(4/4) → 1,084('13. 1/4)
 - ※ D램가격 : 1.17('12. 6월) → 0.89(9월) → 0.82(12월) → 1.08(13년 2월)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평가지수	98	102	97	92	95	99	89	87	89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89	97	89	94	91	99	92	86	86
수출단가 평가지수	109	104	97	99	100	102	94	85	94
생산원가 평가지수	134	123	119	111	117	111	107	100	106
수출물량 평가지수	104	110	101	95	99	103	92	93	91
수출계약 평가지수	103	110	102	94	99	102	92	94	91
자금사정 평가지수	96	99	94	94	94	97	92	98	98

- 산업별로는 석유화학, 섬유, 전기·전자 산업의 업황이 개선된 가운데 자동차, 플랜트 산업은 악화됨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산업	조선	자동차	기계류	석유화학	전기·전자	플랜트	금속	섬유류
'12년 4분기	96	100	88	75	87	107	78	80
'13년 1분기	96	86	87	93	91	86	84	87

2. '13년 2/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2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110으로 전기(93)보다 큰 폭 회복

- 수출기업은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 양상, 원화환율의 하락세 진정 등으로 전기대비 수출업황 개선을 전망하고 있음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6로 1분기(94)보다 상승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은 최근의 원화환율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어 단가 인하압력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17로 전기(99)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업들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회복세 유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지속으로 수출물량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 자금사정 전망지수도 100을 기록 전기(93)보다 상승, 수출기업은 신정부의 기업지원 확대 등으로 자금사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

<수출업황 전망지수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 전망지수	106	116	108	102	99	112	99	96	93	110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101	107	105	100	101	106	99	95	94	106
수출단가 전망지수	102	109	102	99	99	102	100	98	92	102
생산원가 전망지수	112	125	111	108	110	112	104	104	103	105
수출물량 전망지수	110	124	116	107	101	118	102	100	99	117
수출계약 전망지수	109	123	116	106	102	118	101	100	99	119
자금사정 전망지수	101	106	106	100	98	102	100	99	93	100

3. 설문조사 개요

- 설문기간 : 2013년 3월 3일 ~ 3월 17일
- 설문회수 기업수
 - 총 451개 기업(대기업 136개, 중소기업 315개)